



2012-1호 발행 : KT노동조합 익산지부(지부장 노용환)

2012년 01월 11일(수)

익산

2012. 현안 과 결론을 공유하는 지부!

謹賀新年

2012년 임진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kt 익산지사 *KT노동조합 익산지부

2012년 임진년 새해 새출발

조합원과 함께한 "차 나누기 행사"

새해를 맞아 1월2일(월) KT노동조합 익산지부는 차 나누기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2012년은 현장의 현안을 과감히 도출하고 결론을 공유하여 현실적으로 조합원과 가까이서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차 나누기 행사"는 조합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익산지사지부 종사원의 건강 과 기쁨이 항상 같이 하도록 정성을 담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임진년 익산지부는 올바른 한 해를 설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T노동조합 제11대 각급대표자 선출

중앙-정윤모,전북-양정우,익산-노용환 당선

1. 선거일시 : 2011.12.08(木) 09:00 ~ 18:00
2. 투표장소 : KT본사지부 외 688개 투표소(354개 지부)
3. 개표결과
 - 가. 선거인수 : 24,237명/불참인원 : 853명
투표인수 : 23,384명/투표율 : 96.48%
 - 마. 유효표
 - 기호1번 정윤모 후보, 찬성표 21,276표 (90.99%)
 - 반대표 1,755표 (7.51%)
 - 무효표 및 기권표 : 327표(1.4%) / 26표(0.1%)
4. 전북지방본부위원장 당선인 양정우 : 득표율 95.59%
5. 익산지부장 당선인 노용환 (총원76, 투표73, 기권3)
 - 중앙득표:67(91.8%),반대5,무효1
 - 지방득표:67(91.8%),반대5,무효1
 - 지부득표:70(95.9%),반대2,무효1



노조창립 30주년 기념 및 위원장 취임사

KT노동조합 역대 위원장 등 내외빈 참석

지난 1월6일(금) KT노동조합 창립30주년 기념일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기념행사가 있었다. 이날 전국 조합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윤모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변화, 소통으로 11대 노동조합이 그 희망의 실체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KT노동조합의 위상강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 조합원들과 함께 동고동락, 솔선수범 할 것임을 다짐하고, 조합간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취임사 전문 4page)



2012-1호 발행 : KT노동조합 익산지부(지부장 노용환)

2012년 01월 11일(수)

익산

2012. 현안 과 결론을 공유하는 지부!

2012년 정기인사에 따른 전입동료 소개

전입을 축하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전출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년1월10일 직원전보에 따른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익산지사 전입		전 출		비고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란	CER팀	정호숙	사업지원센터	
김현진	CER팀	이명효	군산지사	
이덕용	CER팀	조경식	전주지사 남전주	
이현섭	고객컨설팅2팀	김선중	군산지사	
송호성	고객컨설팅3팀	박민섭	군산지사	
추일호	고객컨설팅1팀	이성훈	군산지사	
한영규	특별기동팀	석숙자	고창지사	
김도연	특별기동팀	한종수	사업지원센터	
김정민	특별기동팀	이진형	북전주지사	
이종승	특별기동팀	김문자	김제지사	
박종관	특별기동팀	양희석	북전주지사	
고현채	특별기동팀	강흥석	김제지사	
박재홍	CER팀	정석희	군산지사	
설재두	고객컨설팅1팀	이정두	김제지사	
임인희	고객컨설팅1팀	최기식	북전주지사 동전주	
김종길	고객컨설팅2팀	김순근	군산지사	
		배정일	북전주지사	
16명		17명		2012.01.10 현재

KT노동조합 규약.규정 개정에 따른 익산지부 조직편성

부서장 및 집행위원 서리임명

익산지부는 2월 초순에 예정된 지부대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위해 부서장을 아래 와 같이 임명하여 각 팀,실 별 현장의 의견을 고루 청취하고 부서장회의를 충실히 수행함을 목표로 서리로 임명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 과 조합활동에 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지원부장 : 이석남(고객컨설팅 1팀 RM)
- 조직부장 : 심재수(고객컨설팅 2팀 ITE)
- 홍보부장 : 진교동(특별기동팀 CM/회선관리)
- 여성부장 : 유옥연(고객컨설팅 2팀RM)
- 집행위원 : 미정





익산

2012. 현안 과 결론을 공유하는 지부!

KT노동조합 익산지부 동정

[알림 및 공유사항]

- 고객컨설팅2팀 체육행사 지원(고창 선운사) - 2011.11.02
- 고객컨설팅2팀 체육행사 지원(군산 신시도) - 2011.11.03
- KTCS응시 조합원 중식 - 2011.11.09
- 수능시험 자녀격려 - 2011.11.10
- 부서장회의 (현안사항 공유-부일불고기) - 2011.11.23
- 부서장 과 함께하는 신입사원 환영회(변사또) - 2011.11.30
- 전북지방본부 상무집행간부 회의참석 - 2011.12.01
- 제11대 노동조합 각급대표자 선출 선거관리 - 2011..12.08
- 제11대 노동조합 각급대표자 선출 선거 결과공유 - 2011..12.09
- 팀별 송년회 참석 - 2011.12.15~16
- 상호부조제도 시행안내 - 2011.12.20
- 업무용단말기 지급계획 추진 안내 - 2011.12.20
- ITE “송년의 밤” 행사참석 - 2011.12.21
- 백순기과장 부친상 지원 - 2011.12.23
- 지사 “송년의 밤” 행사(구내식당) -2011.12.27
- iPad-iPhone에서 Citrix 사용하기 공유 - 2012.01.04
- 익산지부 부서장 회의 및 집행간부 송별회 - 2012.01.05
- 노동조합 창립30주년 및 위원장 취임식 참석(분당) - 2012.01.06
- 의료행사 및 실손의료보험 관련 공지 - 2012.01.7

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사 및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내 외빈 여러분!

오늘은 KT노동조합이 30주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30년 전인 1982년 오늘, KT노동조합은 당시 ‘한국통신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기업을 거쳐 민영화가 되기까지 KT노동조합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첫 공권력 투입 사태가 벌어진 95년 명동성당 농성, 인위적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촉발된 2000년 총파업투쟁 등. 때로는 ‘반국가단체’ 라는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받으면서도 노동탄압을 막기 위해 투쟁하고 애써 온 격동의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KT노동조합은 대화와 교섭을 통한 ‘상생’이라는 전략을 수립하면서, 노동운동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값진 노력으로 KT노동조합이 국내 최대 통신노조로 성장한 만큼, 30주년 창립일이자 11대 집행부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저는 감개무량함을 느끼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지 여러분!

작금의 국내 통신 시장은 가입자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장기간의 외형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운 활로를 통한 수익모델과 성장동력을 찾지 않으면 도태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장세가 멈춘 내수 통신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다각화’ 라는 모토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T노동조합도 통신시장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여, 변화에 발 맞추는 것을 넘어 변화를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앞서나가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글로벌 기업에 맞는 노동조합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KT노동조합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희망찬 미래를 아우르는 시작이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11대 위원장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국의 조합원들을 만나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일부이기는 했으나, 현장에서는 조합간부들이 나태하고 관성화됐다는 지적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고견들이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간부라는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수직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 현장을 읽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성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구태에 빠져 자신의 영달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간부들은 차후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간부의 도덕성 및 신뢰도를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노동조합에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단결은 노동조합의 생명과 같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단결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창조적 의견과 건전한 비판을 외면해왔습니다. 저는 변화와 소통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고 그로 인해 당선되었습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내부소통이 없는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조합의 문을 과감히 열어 제낄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순회를 통해 현장을 공부하고, 조합간부와 조합원 간의 평등한 의견 개진을 위한 토론문화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세력에게는 더 이상 동지의 이름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위상 추락은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회사 경영에도 타격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정 역시 위협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변화, 소통! 이제 11대 노동조합이 그 희망의 실체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11대 집행부는 10대 집행부가 호스트 운동 등으로 좋은 선례를 만들었던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KT노동조합의 위상강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 조합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합간부들이 바로 노동조합이며, 위원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주시시오. 여러분의 3년 활동이 KT노동조합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힘차게, 뜨겁게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6일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

2012-1호 발행 : KT노동조합 익산지부(지부장 노용환)

2012년 01월 11일(수)



익산

2012. 현안 과 결론을 공유하는 지부!

<당선사례>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마음으로 우러나는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존엄한 선택,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 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여곡절 선거과정을 겪어오면서 저 자신과 KT노동조합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주신 따뜻한 격려와 매서운 질책, 모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세기간 동안 현장에서 주셨던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충고, 고견들을 조합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뜻도 깊이 헤아려 균형 잡힌 조합 운영이 되도록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는 충심으로 새로운 각오를 안고 시작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보다 깨끗하고, 보다 따뜻하고, 보다 발전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과거의 답습이 아닌 미래 비전의 노동조합 건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원과 충고를 마음 속 깊이 기억하며, 앞으로도 '제대로 일하는 위원장', '초심을 잃지 않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못한다고 회초리를 드시면 기꺼이 종아리를 내드릴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앞만 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8일

KT노동조합 제11대 중앙위원장 당선자 정운모

익산

2012. 현안 과 결론을 공유하는 지부!

우문현답 (愚問賢答)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

지난 선거 기간 아낌없이 보내 준 성원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난 유세기간 동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조합원들이 하시는
 말씀 깊이 세기며 앞으로 3년동안 전북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우문현답이라는 글을 사용했습니다 어렵지만 아주 쉬운 곳
 그리고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합원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군산 어느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의 한마디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조합원을 많이 만났으면 한다고...”** 저와의 약속이기도 한 찾아가는
 전북지방본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충실히 준비하지 못하여 선거가 중지되는 일도 있어 이번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조합원 여러분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보라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각 지부를 방문할 때 반갑게 맞이해 주는 조합원도, 아직도 낯설어 하는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3년 열심히 하여 모든 전북 조합원이 웃으며 맞이해 주는 그런
 전북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이 되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연말연시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KT노동조합 전북위원장 당선자 양정우





익산

2012. 현안 과 결론을 공유하는 지부!

조합원 여러분 과 같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이 있는 곳에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 힘들고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누구 와
 의논해야 하는지조차도 구분이 안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변화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반드시
 되새겨 작게는 지부 내 교충에서 크게는 중앙의 공약사항
 이행에 여러분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내적으로 조합원 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입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항상 지부실을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현장의 애로를 직시하는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작은 소리를 크게 듣기 위해 부서장회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현장에서 같이 뛰어 성공하는 익산지사 지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외적으로 우리 지부의 현안을 과감히 도출하여 결론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깨끗하고 Open된 Mind라 여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청렴한 사회의 중심에 우리 익산지부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조용한 모습보다 도전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은 오른팔이 두 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 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끝까지 간직하고자 하는 저 개인의 믿음입니다.

부지런하고 오로지 조합원의 편에서 존재의 가치를 찾도록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2011년 KTTU 제11대 노동조합을 세우기 위해 같이 고생해 주신 조합간부 및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에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바르게 정진하겠습니다.

**저 외 한살이 되어 우리 노동조합이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친구같이 가족같이
 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공가도를 힘차게 달려갑시다.**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년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으신 줄 압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가장의 존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차분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1. 12. 08

KT노동조합 제11대 익산지부장 당선인
노용환 드림